

PENTECOST

(Acts 2:14-21)

“That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Pentecost is a Greek word meaning “fifty days”. It is the fourth of the annual feasts of the Jews (after Passover, Unleavened Bread, and First Fruits), that came 50 days after First Fruits. It celebrated the wheat harvest (Ex. 23:16). It was a big holiday in which everybody gathered in Jerusalem. In Acts 2, this day of Pentecost marked the start of Christianity, the beginning of the Church. It was the day that 120 believers were gathered all together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o that they could communicate the Gospel of Jesus Christ.

During Pentecost, Jerusalem was filled with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It was like an international convention where people needed Hebrew interpreters to understand all that was going on. On this Pentecostal day, “suddenly there came from heaven a noise like a violent rushing wind, and 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And there appeared to them tongues as of fire distributing themselves, and they rested on each one of them” (vv. 2-3). What happened? God chose to use these 120 people for His glory. This is a most important fact concerning the primitiv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amazing event didn’t happen from error, it was a miracle. God made a wonderful, new harmony.

When the Holy Spirit came down, many people thought something was wrong. They were confused and surprised to hear God’s Word in their own language. But nothing was wrong. God orchestrated the entire thing. The Holy Spirit began working in individual people. Look at Genesis 1:1-2,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earth was formless and void, and darkness was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was moving over the surface of the waters.” The Spirit of God worked in creating the universe. The Spirit of God that came at Pentecost works on individuals. He touched every one of the 120 believers. He builds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rough individual believers. He comes into every person who accepts Jesus Christ into their hearts as Lord and Savior.

In today’s Bible verses Peter gives an explanation of the phenomena they were witnessing (vv. 14-21). He stands among the eleven disciples and launches his message by connecting with his audience through something they can relate to; the mockers’ statement that they are drunk (v. 15). He points out the unlikeliness of the charge. “It’s only nine in the morning!” (v. 15). Then he points to the real reason for the surprising phenomena they have witnessed; the fulfillment of a prophecy by Joel (Joel 2:28-32) that all devout Jews have been longing to see fulfilled. Peter is telling the people that this age of fulfillment for which they have been eagerly waiting has dawned.

Peter’s explanation was an entirely new thing but it originated from the Old Testament. Christianity cannot eliminate the Old Testament, there is a connection, a refurbishment of the old. “And it shall be in the last days, God says, That I will pour forth of My Spirit on all mankind; And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shall prophesy, And your young men shall see visions, And your old men shall dream dreams” (v. 17). What the people were witnessing was the “beginning” of the last days, when people of all types and ages would prophecy (vv. 17-18). At the “end” of the last days will be cosmic disturbances (vv. 19-20), which will herald “the great and glorious day

of the Lord” (v. 20) — the day of judgment at the end of the world. For believers, this will not be a time to dread,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v. 21). In other words, Peter was reminding his hearers that knowing Joel’s prophecy, they should have recognized what they were seeing as a work of the Spirit. He was telling them that Joel’s prophecy was being fulfilled right in front of their eyes.

Pentecost not only marked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in new life but also marked a radical beginning. It was a beginning that changed the faith of religion, yet maintained the symbols of the Old Testament. Symbols of the past for the Jesus movement were incorporated into the organized Church. They were rooted in the ancient Jewish symbol of the prophetic tradition and Hebrew language. The prophet Joel was remembered in the early moments of the church’s new life. Indeed, the old is revered but it has also been ruthlessly changed.

Revision occurs when the multitude can hear their own language. Imagine Peter standing with the eleven on a pavement in Jerusalem in the middle of the great feast of Pentecost preaching to the crowd in their own language, a language other than Hebrew. The crowd consisted of Parthians, Medes, Elamites, residents of Mesopotamia, Judea, Cappadocia, Pontus, Asia, Phrygia, Pamphylia, Egypt, the districts of Libya, and visitors from Rome. It even included Cretans and Arabs (2:9-11). Now the Gospel was being spoken in all languages. Isn’t that wonderful? Do you remember Jesus’ commission to His disciples? He said,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1:8). Isn’t this what happened at Pentecost? It really happened. The international gathering heard the Gospel, to return home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That’s the power of Pentecost! That’s how it started and happened there.

That God’s Words could be recognized in each language represents Pentecost. What a miracle! This was not an ecstatic experience, but a glorified experience. The church came into existence that day, but the greatest miracle is that the transformation evoked the presence of the ancient prophet Joel, and then was translated into foreign languages. The powerful gospel has the energy to reshape the old, old, tradition, to give impetus to change, and to translate the message into unknown language systems foreign to sacred Hebrew. The good news is resilient and powerful and able to reshape and reform, yes, even culture and language. What a wonderful, wonderful language came to earth at Pentecost. This is not hypothetical, this is the glory of God, the language of the world. The primitive church immediately started by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to the ends of the world. This wonderful history began from Joel’s prophecy in the Old Testament. Actually, the Gospel came from the Old Testament sacred Hebrews to the Gentiles, and to the end of the world. That’s Pentecost.

Do you have the Holy Spirit in your heart? Today is Pentecost Sunday, a day in which the church remembers the importance of its being born again. Whoever believers in the name of Jesus will be saved. Do you believe? Amen



김성권 목사

오순절

(행 2:14~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

오순절(五旬節)은 ‘오십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이 해마다 지키는 절기로써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뒤 50일 후에 맞게 되는 4번째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밭을 갈아들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출 23:16). 그래서 오순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긴 오순절에 기독교, 즉 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만민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각 나라 방언으로 듣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오순절 동안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모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국제적인 모임과 같아서 당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히브리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이 오순절 날에, “홍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와 많은 온 집이 가득하며 복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너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게 되었습니다(본문 2:3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120명을 선별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 새로운 조화를 이루셨습니까.

오순절에 임하신 동일하신 성령

성령께서 강력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자신의 각자 언어로 들리게 되자, 매우 혼란스러웠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멋진 관현악 연주와 같은 하나님의 탁월하신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들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1~2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주의 창조에서 작업하셨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한 하나님의 영은 각 사람들에서 작업하십니다. 그는 120명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는 각 신자들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구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오십니다.

예언의 성취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베드로가 당시 사람들이 목격한 그 광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본문 14-21절 참고). 베드로는 열 한 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서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군중들과 관련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군중들이 “저들이 취했구나” 하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15절). 베드로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일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때가 제 삼 시(오전 아홉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15절).” 그리고는 이 놀라운 사건의 진짜 이유를 지적합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출 2:28-32). 이는 모든 유대인들이 성취를 기대하던 예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다리던 성취의 때가 도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베드로의 설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으면서도 구약에서부터 기원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구약을 무시할 수 없고, 구약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옛것에 대한 갱신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17절).” 그들이 목격하고 있던 사건은 바로 모든 종류와 나이의 사람들이 예

언하게 되는 마지막 때의 시작된 것이었습니다(17-18절 참고). 이 마지막 날의 끝에는 우주적 혼란이 있을 것인데(19-20절), 그날은 곧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대한 예고입니다. 즉 세상의 종말에 올 심판의 날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공포의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21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알고 있는 모든 청중들에게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이 곧 성령의 역사임을 깨달아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요엘의 예언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엘의 예언

오순절 사건은 새 생명의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임재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신앙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구약의 상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믿음을 변화시켰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구약의 상징들은 조직된 교회와 결합되었습니다. 그 상징들은 예언적 전통과 히브리 언어였던 고대 유대적 상징들로부터 기원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교회가 새롭게 탄생하는 초대교회 때 기억되었습니다. 참으로 옛것은 존경된 동시에 가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한 복음의 확산

많은 군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그들의 자신의 언어로 듣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고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위대한 오순절 절기 도중에 예루살렘 밖에서 열 한 제자들과 서서 히브리어가 아닌 군중들의 언어로 설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군중들은 페르시아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가버도시아인, 폰투스인, 아시리아인, 프리기아인, 이집트인, 리비아인 그리고 로마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레대인들과 아랍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행 2:9-11 참고). 이제 복음은 모든 언어로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제자들을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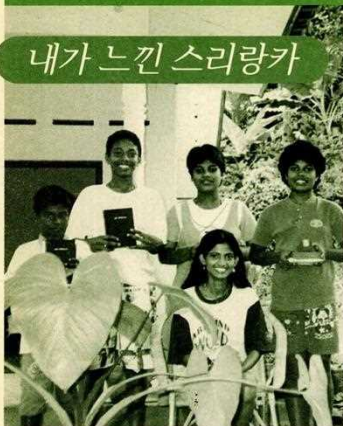
한 예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까? 이 사건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국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땅 끝 먼 곳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전모입니다.

요엘의 예언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각 나라의 언어로 이해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바로 오순절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지 감성적으로 흥분된 사건이 아닌, 영광스러운 체험이었습니다. 교회는 그 날로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가장 놀라운 기적은 그날의 변화가 옛 선지자 요엘의 존재를 일깨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방 언어로 통역되어 퍼졌습니다. 강력한 복음은 오래된 전통을 다시 다듬고, 변화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며, 신성한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언어로 번역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강력 있으면서도 강력하기 때문에 재정비하고 개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문화와 언어도 변화시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언어가 오순절에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이는 추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며, 세상의 언어입니다. 초대 교회는 즉시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성령의 내주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구약의 요엘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복음은 구약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있습니까? 오늘은 오순절 주일입니다. 바로 교회의 새 탄생의 중요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B**

내가 느낀 스리랑카



듯이 큰 도시에는 거의 감리교회가 있다.

3. 현재 스리랑카의 아픔

현재 스리랑카의 당면한 문제는 주종족인 싱할라족에 대해 소수 민족인 타밀족의 분리독립전쟁으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현상이다. 거의 20년 동안 분리독립전쟁으로 국가의 기간산업이 성장을 멈추고 있으며, 국가예산의 적지 않은 부분을 이러한 전쟁에 쓰고 있으므로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때문에 교육이나 기타 복지에 관해서는 많은 투자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국민전성도 매월 평균 300명씩 죽는 비참한 상황에서 좋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집집마다 이러한 전쟁의 피해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이다. 미망인이 늘어가고 있으며, 고아가 늘고, 장애인도 늘고 있는 것이다. 또 장기전으로 탈영병도 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야 할 일은 많다. 심신으로 빈곤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도활동과 구제활동을 같이 펼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미 공식적인 선교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사항은 스리랑카의 기존의 교회들의 소극적인 활동과 대처이다. 스리랑카의 전도활동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선교단체에서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다른 회교국가나 힌두교 등의 타종교 국가에 비해서 적지 않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이다. 물론 스리랑카가 겉으로는 종교적인 평등을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타 종교에 비해서 불교에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과격 불교도들과 과격 무슬림들이 있어 교회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한 선교 단체가 동네주민 전체의 압박과 시위로 쫓겨난 적도 있다.

4.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는 선교를 함에 있어서 희망을 찾아 볼 수 있는 나라이다. 개인전도를 할 때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전도를 통해 지역교회와 연결을 꾀한다면, 상당한 실효를 거두어줄 수 있을 것이다.

스리랑카는 같은 서남아시아라고 해도 파키스탄이나 인도, 네팔이나 방글라데시에 비해 선교 측면에서 많은 유전성이 있다. 그러므로 스리랑카는 단지 하나의 섬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남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전성으로 '작지만 눈부신' 선교의 보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눔 전권수 없음

영혼에 대한 사랑

강호임 (권사, 17교구)

올해 춘천 전도대에서 교육을 받고나니 전도에 대해 소극적이던 태도가 담뻛해졌으며 더욱 영혼에 대한 사랑을 더욱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전도 전략을 세워 보기도 했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교회 가까운 은행을 자주 둘러 은행원들의 명찰을 보고 접근하여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또한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전도할 때면 늘 <주간총회>에 난 새가족 소개란을 보여주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권유해 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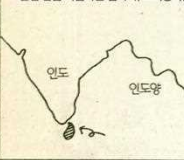
믿음의 늦깎이생인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에는 오랜 자식들의 기도가 있었습니. 아들과 딸이 먼저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자식들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날 목사님 설교가 꼭 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눈이 뽕뽕 붓도록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오는데 아이들을 다들 걱정하 '우리 어머니, 친한 착해' 라고 말해 주며 믿음의 선배 노릇 특별히 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에 사는 여동생도 가끔 서울에 올 때면 이들을 가진 지 전도를 해 큰 도움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제 값없이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노력전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라 믿으며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기쁨을 전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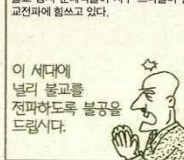
세계 선교지 정보-2

보석의 나라, 눈물의 나라 스리랑카(Sri Lanka)

동양의 진주 보석의 나라 예전 동산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섬나라, 스리랑카.



불교도가 70%를 차지하는 스리랑카는 불교 성지 순례객들이 자주 드나들며 불교전파에 힘쓰고 있다.



현재 티밀족들은 실론 민족에 의한 억압으로 가난과 분노, 두려움에 떨고 있다.



종족간의 분쟁으로 상처받은 이 나라에 화평의 복음이 필요하다



정부와 공공연하게 교회를 탄압하고 수십 개의 교회를 불태우기도 했다.



현재 티밀족들은 실론 민족에 의한 억압으로 가난과 분노, 두려움에 떨고 있다.



많은 스리랑카 젊은이들은 희망없는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곳을 잃을 하민서 돈 벌이에 나서고 있다.



불교도 실론족과 힌두교 타밀족 간의 내전이 1983년에 발발하여 약 200명이 죽고 약 70만명의 티밀인들이 인도와 서북쪽으로 피난갔고 70만명이 이주했다.



그러나 오랜 식민지배의 결과로 젊은이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심하여, 기독교는 열강의 식민지배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어 기독교 성장률은 둔하다.



1. 교회구 수백개의 쇠퇴 후 다시 성장을 시작함. 신앙의 열정으로 이 땅으로 귀환한 교회가 재건되도록 기도하라. 2. 한국에 나갔다는 스리랑카 청년. 3. 이산가족을 돌보고 있는 스리랑카 청년. 4. 자매들이 잘 훈련되어 자국의 선교사로 대량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 나라가 예수의 복을 안에서 하나되고 서로 화해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총현교회 방글라데시 파송 선교사 기도제목

* 중보기도를 통해 보내는 선교사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총현교회인들이 됩시다.

1. 박태양 전도사님이 집이 안 좋아 고생하고 계시니 전도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시요.
2. 방글라데시 팀원, 박태양 전도사, 이명하, 김서영, 정현주 자매가 성령안에서 하느님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3. 방글라데시 사역을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 신실한 현지인 일꾼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사역을 좀 더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4. 현지어인 벵갈어를 배우는데 주님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요.



하나님, 잠깐만요.

김정민 (청년2부)

“정민아”
 “네? 하나님이시군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대화 좀 하자.”
 “대화를? 뜬금 없이 대화하나요?”
 “너하고 대화할 차가 정말 오래 되었어.”
 “글쎄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 이 일만 끝내 놓고요.”
 “너 지난 번에도 그 일만 끝내놓고 나를 만나더니, 일이

끝난 후 곧바로 잠들어버렸잖아.”
 “제가 그랬나요? 미안해요.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로 이 일이 급하거든요. 마감이 널모래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무슨 하신 말씀이라고 있으세요? 저는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
 “생명에 관련된 일이야.”
 “생명이요?”
 “그래, 네 영혼말이야. 영혼.”
 “영혼요? 글쎄요. 아직은 관심은 것 같은데... 지금은 살만하니까 이왕 기다리실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

지금의 직장에 입사한 이래 나는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 입사하기 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마약하듯 잊어버린 채,
 늦은 밤, 일에 치여 부거운 몸을 누이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아침에 겨우 눈을 뜨고 일어난다. “피곤하다. 잘자고 싶다”라는 말이 어느새 일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나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이직에 내 안에서 누런듯 평안도 사라졌다. 말씀이 어색해지고 예배가 낯설게 느껴진다. 하루 하루의 시간들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이 불안하다. 나는 쫓기고 있다. 시간에 쫓기고 해야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강박관념에 쫓긴다. 하루 중 잠시도 안정된 시간을 누리지 못한다. 이런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나를 자책하는 것도 이제 지겨운 짓이다.
 “하나님, 대화하고 싶어요.”
 “그래? 정민아,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하죠? 생활이 뒤죽박죽 되어서 무엇을 먼저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매일 초근초박에 애기를 누우던데 이런 일엔 없었을 텐데, 제가 좀 알맞죠?”
 “아니야, 그렇지 않단다 정민아.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 온 네가 무척이나 사랑스러워. 하지만 일에서 반복하는 것은 곤란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진노하는 하나님이기도 하거든. 삶에 있어서 무순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렴. 정말 중요한 것은 네 생명이란단다. 옛 사람의 모습을 계속 간직하고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명분 하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하지만 하나님이 빠진 삶은, 불안과 악몽과 희망 없는 하루를 나에게 안겨줄 뿐이었다. 이제 나는 다시 대화를 한다. 그리고 평안이 슬며시 고개를 드는 것을 느낀다.

나는 아빠다

오수민 (청년2부)

얼마 전 ‘좋은 아빠의 모델’을 알게 되었다. 정말 노력하고 있구나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나는 어떤 아빠인지 물어 보았다.
 초등학교 5학년인 큰 딸이 말
 “음...물론! 억, 모르다니
 “아니 아빠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물어 것 아니냐?”
 “그래도 잘 모르거나...아, 늦게 물어오는 것은 싫어!!!...아빠가 오리 해주시는 것은 좋고...그리고...”
 큰아이는 한참이나 고민이 되는 것 같다. “그럼 재능은 어떤?”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다. “난 무서울 때때고 다 좋아!” 오잉...무서울 때,
 “아빠가 언제 무섭냐?” “음, 아빠가 온날 때”
 만화책을 보면서 무섭히 면지는 둘째의 대담에 난 어이가 없었다.
 하하하...아내는 한참을 웃는다. “당신은 왜 웃고 그래, 당신이 볼 땐 내가 어떤 아빠 같아?”.....“당신은 매우 엄격하고, 냉정하고, 보수적이고,이기적이고 또...”, 서슴치 않고 나오는 아내의 대답에 난 매우 놀라웠다.
 “아니 내가 정말!!!...”
 “그럼!!!, 당신은 매우 다정 다감한 하지만 유독 자식들에게 엄한 것 같아!”...쿵... 이런 내가 그럴구나...엄마의 말에 동의하는 아이들.....
 “그럼 막내 수하는 아빠 좋아?”...“아빠 조아...”, 어떤 막내의 재롱처럼 한마디가 우리 집 안에 울려 퍼진다... 맞아 난 아빠다.
 아들은 어린 자녀들의 아빠이고, 나에게는 세상을 배우는 가족이 있는 아빠다. 그런데, 난 어느새 그 옛날 아버지의 모습을 달아놓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그토록 어려웠던 아버지의 모습을 달아 가고 있다...
 함께 하는 가족 때때 시기에 두손을 조아리고 기도 하는 아이들...난 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 것인걸!!!...
 나도 아빠가 되고 싶다.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아빠가 되고 싶다.
 세상 방식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바른 믿음을 가지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아빠가 되고 싶다.
 소우 하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실천으로 가르치는 아빠가 되고 싶다.
 이 세상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다정한 아빠가 되고 싶다.
 사랑받는 자녀에게서 사랑 받는... 난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

Cartoon by JaangMinn

2011. May. 27

•배드립 때 후 남을 그리스하고 농치보느라
 게다가 •배에 집중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궁극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문의 및 아이디어제공 : minj74@jaangminn.com

이러한 청년 2부가 되게 하소서

1. 매 순간마다 천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2. 천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3. 모든 역사는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며 주께서 이끄시며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확실하게 하소서.
4.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며 주께서 이끄시며 주에게로 돌아 간다는 것을 날마다 확실하게 하소서.
5. 신구약성경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계시이므로 우리의 삶과 생각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소서.
6.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인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인줄을 알고 감사하게 하소서.
7.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원인이요 이끄는 자이며 성취자가 되게 하소서
8. 성경을 가슴에 담고 세계 역사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민 구원의 역사를 분별할 줄을 알게 하소서.
9.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더욱 강하게 대적하는 21세기 세상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고 달려라 외치게 하시고, 주님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세상을 변화케 할 힘이요 능력임을 알게 하소서.
10. 시대 바울이 이방인들을 개종시켜 예수께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셨듯이 우리들도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오늘은 예수께 바치는 복음의 산 제사장들이 되게 하소서.
11.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악에 대하여는 저주의 심판이었듯이 죽기까지 악에게 대항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12. 성경은 여호와께 의로우니 죽을 앞에서 당당하게 주의 의로움을 이루게 하소서
13. 우리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도 있을 지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십자가 군병되기를



비가 올 것 같으면서도 기온이 오르는 오후,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꽤나 분다. 오전에 몇차례의 전화 약속을 하고 한양 3구역으로 나갔다.

부지역장 조혜순 권사님과 구역장, 전사님들이 둘러앉아 친교를 나누고 있었고 조 권사님께서 구역 식구 소개를 하시며 병원에 갔다 온 식구도 있다고 하셨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였다.

이영숙 구역장은 '원수의 장례식'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행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셨다.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촉구하셨다. 그리고 오늘의 찬양처럼 십자가 군병 되기 위한 은혜를 간구하며 합심기도를 드렸다.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높은 현실 속에서 구역식구들은 예배를 위해 모이고 흩어져서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가고 다짐하였다.

구역식구 중 새가족부를 수료한 이기영 권사는 전도회를 통한 교회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와 새가족부의 교육을 통해 지금의 신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정성적 베푸신 이 구역장의 사랑의 오찬을 통해 친교를 나누며, 자상하신 권사님을 모신 젊은 층의 구역으로 든든함을 느끼며 오늘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를 외쳤다.

(임통게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김 성준' 형제를 소개합니다

1남2녀중 장남이며, 미혼입니다.

평범하지만 가끔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생각을 내어 스스로도 좀 엉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권하는 사람이 없다가, 먼저 새가족부에 나왔던 여동생의 권도로 흔쾌히 나왔습니다.

교회의 큰 규모에 무척 놀랐고 다양한 인종(외국인)이 예배드리시는 가치 국제적인 교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니다.

어떤 종교든 성실히 믿으면 된다는 종교관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은 어려울 때 꼭 예수님만 찾아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고 합니다.

새가족부에서의 퀴즈대회와 새가족 소개 설문지 취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엄숙한 교회 분위기에 명랑하고 쾌활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숙정 (새가족부 통신원)

+ 양오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16교구 이양구 집사(남78세) 폐암 말기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음식을 섭취가 전혀 불가능하고 혈액 주사 무어든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갈 준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시31:5)

따뜻한 이야기

위대한 유산

한세기 전 모든 재산을 털어 공공도서관 2,800여 개를 지었던 미국의 앤드루 카네기, 또 미국에서는 자선사업가로 알려진 폴 멜런, 그리고 우리나라 유한양행의 창업주인 유일한 박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본보기로 꼽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진리에 대한 열정보다 돈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 때문에 이들의 선한 삶이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

그런데 물질 중심적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 요즘에도, 다행히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몇몇 운동이 일고 있어 마음을 훈훈하게 해준다. 특히 1984년에 기독교인들과 전문직업인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유산남기지않기운동'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듯하다. 이 운동은 유산의 사회기증을 통해 예수행기를 전하고 있다. 이 운동에 동참한 한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남겨주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식들의 행복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십니다. 자녀들한테는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 잘 벌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면 되죠"(2001.1/1 빛과소금). 이것은 현대 물질 문명 사회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며,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위대한 유산은 무엇인지에 대해 큰 깨달음을 주는 말이다.

이밖에도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 주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달라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지금 자신의 생활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 보면 어떨까? 과연 나는 하나님과 재물 중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있는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없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막 8:36,37).

(김성희 기자)

세상의 빛과 소금(삶의 현장에서 헌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Lordship)이 실현될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선언하라.

분명히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눈가림과 적당주의가 떠나갈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죄에 대하여 No라고 말하라.

정결함과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기꺼이 하라.

주님의 섬김이 그대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존심, 재정, 시간을 희생하지만 천국의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모임을 만들라.

두 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마18:20).

어릴 적 추억

서미미 (유치부 교사)

어렸을 적, 제가 다니던 교회는 당시로서는 꽤 큰 교회였는데도 유치부가 없어서 엄마와 함께 늘 이른 예배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험에 있는 분들은 동감하시겠지만 이른 예배가 어린 저에게는 얼마나 고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찬송을 부를 때면 따라 부르면서 예배에 동참한다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장로님의 끝없이 긴 기도와 전례 후 손 이마기인지 모를 땀방울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시간에는 '언제 끝나나! 시간이 빨리 가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유년부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시절에 들었던 전사님의 설교말씀이 도막도막 머릿속에 남아 있고, 여름 성경학교 때의 풍경은 지금까지도 그럴듯한 기억 속에 남아 생생합니다. 철이 들어 배운 성경에 대한 지식보다 어릴 적 외우고 배웠던 말씀이 지금도 제 생활에서 문득 되새기며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그 때의 지식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걸 보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조기교육은 정작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신앙교육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저는 제 아이가 세 재능을 매지 못했음 때문에 교회학교에 보냈고 아이가 유치부에 다닐 때 유치부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는데 저 뿐만이 아니고 저와 비슷한 계기로 봉사하게 된 선생님들이 참 많습니다. 모두들 자기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나에게 맡긴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고 값진 영혼들인지 참으로 잘 알고 있기에 매주일 반 아이들을 만나면 꼭 안고 기도해 주면서 주일을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내 아이에게 소홀히 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그 때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하리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요령도 생기고 조금 더 편해지고 싶어 대충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면 여지없이 나를 힘들게 하셔서 정신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심하신 배려에 감사할 뿐입니다.

올해는 젊은 대학생들이 유치부에 많이 오셔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재미있게 가르치고 계신데 때론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때론 얼굴에 커다란 가면을 쓰고 온몸을 움직여 가며 뭔가를 표현할지 때마다 아이들은 매우 신기해하면서 그 시간에 빨라달라고 모를 합니다. 그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새로운 도전을 받게되어 매주일 유치부가 새로워짐도 실감할 수 있구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때때로 필요할 것으로 채워지며 참된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바빠서, 같이 맡거나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 아이가 지금 이 아름다운 조화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OO 어머니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솟아나듯 삭이라고 꽃이 피는 봄날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00이가 몸마서 기다렸습디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믿고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할까요.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은 주어진다

입니다. 다만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겠지요. 내외분이 교사로 봉사하시다가 소식이 없다는 새가족부의 이야기와 듣고 저는 00이를 생각하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00이를 보고만 마음에 미아리 고개를 다닐 때면 떠올립니다.

항상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지칠 때 다가오시는 그 분,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기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아흔 아홉 마라의 양보다 많은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신 분하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응답하시는 주님, 그것이 믿음의 아닐까요.

나날이 봄벌이 따듯해 지는데 00이 가족이,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합니다.

인생의 기쁨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듯이 어려운 날이 있다면 또한 복된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힘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응답을 해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언제나같이 00이 얼굴을 대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언제 힘들고 어려움의 가운데로 달려 나으실 때 참으로 요한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의지해야 하며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크나큰 축복이신지요.

00어머니! 00이를 주님 손에 위탁하고 키워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신실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아이가 지혜롭게 순종하는 자녀로 자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기도하여 안녕히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유치부 꽃밭 담임 이선자 올림



아이들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지 형 (유아부 학부모)



주일 오전 8시30분이 되면 교육관 214호에서는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 나옵니다.

바로 유아부 찬양대의 연습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작은 입으로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저도 새 힘이 솟아납니다.

부족한 제가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봉사한지 9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학생, 군인, 직장인 등 많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에 열심을 다하고서 생각했습

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찬양대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 행복했었지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 영아부 출석을 하게 되면서 저와 아내 중 한 사람은 더 이상 찬양대 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역할을 아내가 맡아주어 저는 계속 찬양대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유아부에 올라왔을 때, 유아부는 영아부와 다르게 학생들이 엄마·아빠와 떨어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지만 아이는 적응을 못해 저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는 할머니·할아버지와 생활하던 때라, 저와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어서인지 더욱 그리했지요. 저에게는 그 시간이 찬양대 주일 아침 연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던 중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

다.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제가 계속 찬양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2주 후 아이는 '아빠 생생하고 예배드릴래요'라고 하면서 혼자 예배드리게 되었고 선생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기도로 성경암송대회, 주기도문암송대회도 참가하는 등 유아부에 적응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유아부 찬양당원으로 봉사하면서 오히려 아빠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 끝로나 유아부 선생님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하며 언젠가는 우리 네 식구 모두 각각 찬양대에서 봉사하자는 찬양대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는 시간이 올것이나 믿습니다.

내일은 그리스도의 반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언뜻 스치거는 한 순간의 잊지 못할 감동을 품는다.

얼마 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 것이나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은 제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게 부담스러웠던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였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적어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디다'(요 17:16).

직원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를 때 술자리를 마련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지만 때로는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음주수로 분위기를 맞추지만 동료들의 눈초리는 따갑기만 합니다. 또 회식자리에서 빠지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자신들의 문화에 속하지 않는다 하여 동료들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럴 때면 이런 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내는 열심을 보고 '허비'라고 비난하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적인 행복을 위하여 쫓는 열정에 대해서도 '허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세상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열정에 대해서는 '허비'라고 말합니다. 지나치고도 합니다. 믿어도 유별나게 믿는다고 하거나 광신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무엇이 허비인지 생각해 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6).

(권형일 기자)

